

“다시 자연으로”...원효계곡 상가 철거 ‘속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마을지구 정비 63곳 중 22곳 완료...‘미퇴거’ 협의 계속 탐방로 통제...훼손된 생태계 복원 박차

무등산국립공원 심층부에 위치한 원효계곡 일대 상가 철거가 본격화되는 등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원효사공원마을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철거 작업이 지난달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철거 대상은 27동에 분포한 상가 63곳으로 이날까지 15동·22곳이 완료됐다. 작업은 동 단위 건물을 철거하고 잔해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실제 이날 오후 2시께 찾은 원효계곡 일대 상가 중 해체가 끝난 부지는 말끔했다. 아직 수거되지 않은 잔해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통해 반출된다는 게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의 설명이다.

등산객 안전을 위해 역사평전-원효광장, 풍암정-원효광장, 제철유적지-원효광장 구간 탐방로는 철거 작업이 끝날 때까지 통제가 유지된다.

다만, 정확한 통제 시점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상가가 아직까지 자진 퇴거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달 철거대상 상가 중 9곳을 자연공원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5곳은 자진 이주 의사를 밝혀 고발이 취하됐지만, 4곳은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남은 상가들과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며, 비위진 동을 우선 철거할 방침이다.

한편 원효사공원마을지구 정비사업은 무등산국립공원 심층부인 원효계곡 일대 노후 상가를 철거해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23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다. 그러나 철거대상인 일부가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는데, 최근 협의가 이뤄졌다.

철거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인 생태 복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철거 이후 훼손지 복원을 통해 원효계곡을 자연 생태 공간으로 회복할 계획”이라며 “탐방객들도 통제 구간 출입 제한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찬용 기자



13일 오후 광주 북부 원효계곡 일대에서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점유 상가 철거 후 잔해 정리를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항일정신 터전’ 광주 녹색상회 이르면 7월 문연다

남구 ‘살롱 드 사직’ 일환 인문학 공간 이달 실착공...“운영자 모집 등 만전”

광주 지역 항일운동의 상징 중 하나인 ‘녹색상회’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돼 이르면 7월 말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녹색상회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살롱 드 사직’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인문학 살롱’으로 제공된다.

남구는 약 4억원을 투입해 녹색상회 건물 원형을 보존하며 청년, 문화예술인 등을 위

한 공유사무실인 ‘코워킹 스페이스’로 조성한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해체 허가 행정절차가 늦어져 올해 3월29일 허가됐다.

이후 4월7일 공사가 재개됐고 자재 준비, 공간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달 초에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실착공 일주일가량이 지난 현재 공정률은 5% 정도로, 남구는 오는 7월 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남구는 7월 중 운영자를 모집, 준공과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기남 도시재생팀장은 “빠르고 안전하게 작업을 끝낸 후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상회는 1900년대 학생운동가 김후욱이 남구 사동에 설립 후 뜻을 함께할 후학에게 유도와 권투 등을 가르친 장소로 항일·청년 운동의 산실이자 근대 체육의 태동지로 평가받는다.

/서형우 기자

광산구, ‘폭염 선제 대응’ 종합대책 가동

오는 20일부터 9월까지 6대 분야 그늘막 정비·냉수 냉장고 등 운영

광주 광산구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선제적인 폭염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섰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저감 시설 운영, 취약계층 지원, 농촌동 예찰 등 6대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그늘막 216개소와 안개형 냉각 시설(쿨링포그) 3개소 등 총 219개소의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그늘막을 추가 설치해 도심 햇빛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체감형 정책인 ‘냉수 나눔 냉장고’는 올해 30개소로 확대해 동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전 통시장과 야외 작업장까지 거점을 확보, 야외

노동자와 시민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다.

취약계층 보호망 강화를 위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382개소의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농촌 지역은 8월부터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활용해 주 2회 정밀 예찰 활동을 벌인다.

광산구 관계자는 “여름이 빨라진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폭염 대응 시기를 앞당겼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옥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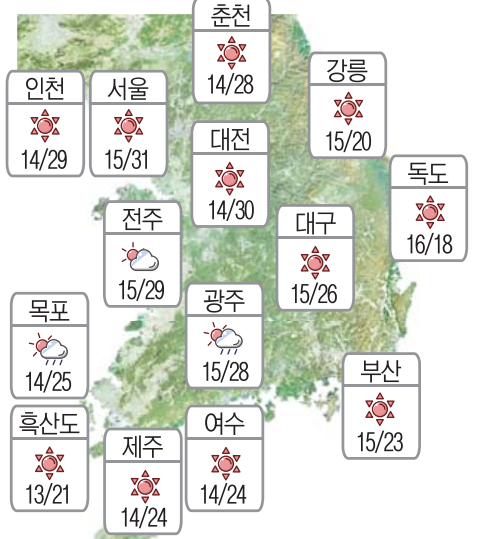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해질 19:28 🌧달돋음 03:22 달짐 16:36

●광주·전남 날씨

광주	흐려져비	15/28	장성	흐려져비	14/27
목포	흐려져비	14/25	보성	흐려져비	13/25
여수	맑음	14/24	함평	흐려져비	12/27
나주	흐려져비	13/28	순천	흐려져비	14/26
완도	맑음	13/25	영광	흐려져비	13/26
구례	흐려져비	14/28	진도	맑음	13/23
강진	맑음	13/25	흑산도	맑음	13/21
해남	흐려져비	13/25	고흥	맑음	13/25
광양	흐려져비	13/26	담양	흐려져비	14/28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부	면바다(북) 0.5-1.0	0.5-1.0
	면바다(남) 0.5-1.0	0.5-1.0
남해	앞바다 0.5-0.5	0.5-1.0
서부	면바다(동) 0.5-1.0	0.5-1.5
	면바다(서) 0.5-1.0	0.5-1.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11:52	05:14	07:01	00:42	07:38	01:44
	--:--	17:31	19:31	13:05	20:10	14:02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60 **세차 40**
감기 조심해요 차 내부정돈이 좋아요

빨래 60 **운동 50**
실외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히

●주간 날씨

15일(금)	16일(토)	17일(일)
☀(14/29) 맑음	☀(14/31) 맑음	☀(16/30) 맑음
18일(월)	19일(화)	20일(수)
☀(16/29) 맑음	☁(15/27) 구름맑음	☁(17/23) 구름비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